

# ‘조선농민사’의 농민문학론과 농민소설\*\*

류 양 선\*

## I. 서 론

최근에 들어서 농민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민족문학 내지 민중문학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밀접히 관련된다. 농민문학이야말로 민족·민중문학의 흐름과 그 성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핵심부분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기실 한국현대문학사는 1920년대 중반기부터 발생한 농민문학의 흐름을 제외해 놓고는 제대로 해명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민족·민중생활의 반영으로서의 문학 또는 민족·민중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문학을 문제삼을 경우, 농민문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족·민중적 생활 현실이 농민들에게 집약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며, 따라서 농민운동이 민족·민중운동의 주요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본고에서는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초에 걸쳐 전개되었던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과 관련하여 그 기관지였던 「조선농민」, 「농민」에 수록되었던 농민문학론 및 농민소설을 중심으로 식민지 시대 농민문학의 일단을 살펴 보고자 한다.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과 농민문학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문들을 통해 그 내용과 성격의 상당부분이 밝혀져 있는 상태이다.<sup>1)</sup> 이 논문들에서는 대체로 식민지

\* 덕성여대 국문과

\*\* 이 논문은 198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작성된 것임.

1) 「조선농민」 및 「농민」에 수록된 농민문학론에 대해 언급한 주요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芹川哲世, “한일농민문학론의 비교고찰”(申庚林편, 「農民文學論」, 은누리,

시대에 있어서의 또는 해방 이후까지의 농민문학론의 내용과 흐름을 농촌 현실 및 농민운동과 관련하여 파악해 가는 과정에서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과 농민문학론이 큰 비중을 지닌 항목으로 다루어져 있다. 그 논의의 결과를 거칠게 훑고 본다면, 「조선농민」 및 「농민」에 수록된 농민문학론이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과 더불어 계몽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또한 프로문학 측의 교조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또 무정부주의 내지 중농주의적 성격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에는 수준높은 농민문학이론이 도달하였다는 점등이 지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문학이론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한 작품에 관한 논의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론의 정당성 여부는 실천에 의해서만 검증된다고 할 때, 문학이론에 대한 실천이란 다름아닌 작품창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이론과 문학작품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 작품 없는 이론은 공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 독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우려조차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농민」 및 「농민」을 중심으로 한 농민문학의 경우에도 이론 부분 뿐만이 아니라 창작부분이 함께 고찰될 필요가 있으며, 그럴 때에 비로소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과 농민문학의 전체적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민문학을 농민운동과 관련시켜 파악하는 경우에 그 사회적 성격에 대한 객관적 접근이 있어야 하겠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특히 농민운동의 주도세력이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성향이 농민문학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조선농민」과 「농민」에 수록된 농민문학

1983)

崔元植, “농민문학론을 위하여”(『韓國文學의 現狀階 Ⅲ』, 창작과 비평사, 1984)

김명인, “民族文學과 農民文學”(『한국문학의 현단계 Ⅳ』, 창작과 비평사, 1985)

권영민, “식민지 시대의 농민운동과 농민문학론”(『한국민족문학론연구』, 민음사, 1988)

론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는 대체로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을 농민주체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에서 연유하는 듯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은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이 지니는 민족개량주의적 성격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 된다.” 조선농민사의 농민문학을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조선농민사(크게는 천도교청년당 또는 천도교 신파측)의 민족개량주의적 성격에 크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선농민사의 그러한 정치적 성향이 농민문학론이나 농민소설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리라고 추단하는 것은 물론 금물이다. 「조선농민」, 「농민」에 수록된 농민문학론 및 농민소설의 성격과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의 성격과의 낙차는 항시 유념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 II. 「조선농민」의 농민문학과 농민소설

‘조선농민사’는 천도교 신파측의 전위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천도교 청년당’(1923년 9월 결성)이 주축이 되어 1925년 10월에 창립한 농촌계몽운동단체이다. 따라서 조선농민사는 천도교 신파측의 정치적 성향으로 미루어 민족개량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비록 천도교청년당 측이 명망있는 사회인사들을 망라하여 개별적 참여의 형식으로 조선농민사를 창립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천도교 신파측에서 각계의 다양한 인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취하게 된 하나의 창립형식에 불과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농민사는 천도교청년당의 외곽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동시에, 소위 민족성 개조, 실력양성, 자치론 등을 내세웠던 민족개량주의자들이 그러

2) 趙東杰, 「日帝下韓國農民運動史」(한길사, 1979)에 의하면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은 다른 계몽주의적 농민운동과는 달리 농민주체성이 강조되어 있다고(p. 174) 했으나, 池秀傑, “朝鮮農民社의 團體性格에 관한 연구”(『歷史學報』 106, 1985. 6)에서는 조선농민사가 당시 민족개량주의자들에 의해 조직된 대표적인 농촌계몽운동단체였다고(p. 173) 했으며, 김현숙, “일제하민간협동조합운동에 관한 연구”(『일제하의 사회운동』, 문학과 지성사, 1987)에서도 조선농민사는 민족개량주의자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층을 장악하여 세력을 확대시키고자 조직한 것(p. 247)이라고 하였다.

3) 지수철, 앞의 논문, p. 179.

한 주장을 농촌운동을 통해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농촌계몽운동단체였다고 하겠다.<sup>4)</sup> 그렇기 때문에 조선농민사는 근본적으로는 당시 총독부의 기만적인 문화정책의 영향 밑에 생겨난 단체들 중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농민」의 농민문학론과 농민소설은 상당부분 민족개량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조선농민사의 지방조직에 있어서는 자생적(주체적) 농민운동이 있기도 했겠지만, 「조선농민」은 중앙조직에서 퍼내는 기관지인 까닭에 거기 수록된 농민문학역시 위에 언급한 조선농민사의 단체성격을 적지 아니 반영하고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비쳤듯 「조선농민」의 농민문학론과 농민소설이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의 성격에 전적으로 지배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단적 경향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선농민」의 농민문학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규명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농민문학론과 농민소설을 검토함으로써 「조선농민」의 농민문학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것이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의 성격과 어느 정도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을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 농민문학론

「조선농민」에서 볼 수 있는 농민문학에 관한 논의는 그 내용이 다양하여 도저히 하나의 체계로 묶어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 각각의 필자들 또는 논문들 사이에 나타나는 주장의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한 편의 글 자체내에서조차 관점의 혼란이 노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농민」의 농민소설론이 특정한 문학이념의 영향 밑에 쓰여지고 편집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전반적인 문학경향 및 사회사상을 알게 모르게 수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런 까닭에 「조선농민」의 농민문학론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갈래의 방향에서 접근해 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4) 위의 논문에 의하면 사회주의자들의 농민획득운동이 가열화하자 조선농민사는 1928년 2월 社制改正을 통해 '농민총동맹' 등과 본격적인 농민획득경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고 한다(p. 184).

「조선농민」에 나타나는 농민문학론의 대표적 필자인 李晟煥은 조선농민사의 중앙이사장이면서 동시에 「조선농민」의 편집인 겸 발행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천교도청년당의 농민부 수석위원이었으면서도 천도교청년당의 중심권에서는 소외되었던 인물인 듯하다.<sup>5)</sup> 뒤에 언급되겠지만 그는 1930년 4월 조선농민사가 천도교청년당의 명실상부한 예속단체로 개편될 때, 조선농민사를 탈퇴하여 별도로 ‘전조선농민사’를 결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성환은 “농민문학의 제창”이라는 글에서 舶來品이 농민을 훑어내리는 것처럼 도시중심의 현대문학이 農民獨自의 감정과 정신을 빼앗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말초적·찰나적인 불건전한 도시문학을 버리고 야성미와 건강성을 갖춘 농민문학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방성·향토성에 뿌리를 둔 농민문학을 일으키는 것이 당시의 침체된 문단을 건지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들(현대인, 도시인 : 필자)의 예술은 보다 높은 靈을 위한 예술이 아니요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일순간이라도 떠나기 위하여 망각하기 위하여의 마취제적 예술입니다. 그것은 大空과 大地와의 神秘愛를 생각도 못해본 사람들 사이에 생긴 예술입니다. 그러므로 예술의 神聖을 위하여 人道를 위하여 대자연의 문예 즉 전원문학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농민문학을 제창하여 마지 아니합니다.<sup>6)</sup>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한 마취제적 예술인 도시문학을 부정하고 대공과 대지의 신비애를 간직한 전원문학 내지 농민문학을 제창한다는 위의 주장은 그러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二分法的 논리이다. 즉 도시(문명)는

5) 이성환이 천도교신과측의 천도교청년당 및 그 외곽조직인 조선농민사에 관계하게 된 것은 그러한 조직을 통해 자신이 구상하고 있던 농민운동을 일으켜 보려는 의도에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성환이 조선농민사의 중앙이사장이 된 경위는 朴思稷의 천거에 의해서였다고 한다. 천도교청년당에서 불 때 조선농민사를 책임질 적임자로 여겨지던 金起田, 趙基萊, 李敦化 등이 다른 重任을 맡고 있던 터라 박사직이 일본에서 알게 된 이성환을 새로운 인물로 추천했던 것이다. 박사직은 天道敎日本東京宗理院에서 사무를 보고 있었는데 역시 천도교인이었던 이성환이 교회에 자주 오므로써 서로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조선의 농촌문제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朴思稷, “朝鮮農民社의 發展過程”, 「농민」 1930.7, 부록 pp.5~6 참조)

6) 이성환, “農民文學의 提唱”(「조선농민」 1927.6), p.3.

곧 악이요 농촌(자연)은 곧 선이라는 도식적인 대립개념을 문학에 적용시켜 놓은 형국인 것이다. 그 결과 농민문학이 마치 도시문학과 반대되는 개념인 것처럼 주장되는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도시와 농촌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결여한 데서 오는 오류이다. 이성환은 이미 이 글 이전의 다른 글에서부터 이러한 주장을 폈거니와<sup>7)</sup>, 이러한 종류의 농민문학론은 향토성 내지 농본주의를 강렬히 내세운다는 점에서 중농적 세계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8)</sup>

그러나 이성환은 자신의 농민문학론을 ‘농민문학’에 대한 관심에서 ‘농민문학운동’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시키면서 그러한 중농주의적 견해를 상당부분 극복해 나갔다. ‘농민문예운동호’라는 제목으로 나온 「조선농민」 1929년 3월호 卷頭言에서 이성환은 농민문예는 전원문학이나 향토에찬문학이 아니라고 하면서 人生化, 生活化, 社會化한 문학 즉 汎프로레타리아 문예라고 주장하였다.<sup>9)</sup> 이어서 그는 “농민문예운동의 제창”이라는 글에서 한편으로는 민족의식과 합치되는 의미에서의 향토주의적 태도를 보여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는 계급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sup>10)</sup> 그러면서 그는 또 농민문예가 “옛날 봉건사상에 중독된 農者는 天下之大本이라는 百姓意識이어서는 안되며 인습적 農民魂의 긍정적 표현이어서는 더욱 안된다”고 하여<sup>11)</sup> 反봉건적 관점을 내보이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當來社會는 現代의 社會構成과는 달라서 「흙」에 依存치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sup>12)</sup> 무정부주의 내지 중농주의적 사고의 편린을 계속 드러내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이성환의 농민문학론은 그 내용이 발전되어 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그 과정에서 관점의 혼란이 노정되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농민운동가로서 농민문

7) 이성환은 “新年文壇을 向하여 農民文學을 일으키라”(朝鮮文壇) 1925. 1)라는 글에서 민족주의적 경향과 함께 중농주의적 경향을 드러낸 바 있다.

8) 조선농민사를 중심으로 한 농민문학이론가들의 중농적 세계관 내지 무정부주의적 세계관은 김명인, 앞의 논문에서 지적된 바 있다(p. 214 이하 참조)

9) 이성환, “大地의 부르짖음”(조선농민) 1929. 3. 권두언, p. 1.

10) 이성환, “농민문예운동의 제창”(조선농민) 1929. 3), p. 4.

11) 위의 글, p. 4.

12) 위의 글, p. 5.

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당시의 프로문학이론 등을 받아들인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결국 이성환의 농민문학론은 향토주의를 중간항으로 하는 민족주의적 관점과 중농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입장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농민의식을 중간항으로 하는 프로문학적 관점과 反봉건적 관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고 하겠다.

金道賢은 “농촌문예와 계몽운동”이라는 글에서 전원문학 또는 향토예술은 일종의 방향성을 자극하는 도시인의 문학이므로 진정한 농촌문예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또 도시문예의 세기말적 병적 현상으로 문예운동이 침체되고 있으며, 그 침체의 원인은 문학분야에서 농촌을 버려두었던 까닭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어서 농촌문예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우선 문맹퇴치를 중심으로 한 농촌계몽운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이것은 반드시 유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효과가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성을 띤 큰 힘, 즉 “이상으로 보든지 오늘날까지 밟아온 경력으로 보든지 구성되어 있는 인원으로 보든지 또는 경제의 힘으로 보든지 지금에 일해가는 형편으로 보든지 무엇으로든지 제일 큰 힘 될만한 집단이 있다면 이 큰 집단의 힘”<sup>13)</sup>에 의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김도현의 주장은 첫째, 농촌문예를 일으키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둘째, 그러한 운동의 유기적 전체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글에는 文面에 잘 나타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숨겨져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선 이 글이 쓰여진 때가 조선농민사의 분열조짐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28년 이후 신간회, 농민총동맹 등이 점차 지방운동을 장악해 가던 상황에서 천도교 신파측은 조선농민사를 천도교청년당의 하부조직으로 개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法的關係案〉을 안출하여 이성환 측의 반발에 부딪혔던 것이다.<sup>14)</sup> 뒤에 다시 설명되겠지만 이 〈法的關係案〉은 1930년 4월 조선농민사의 제3차 전국대표자대회에서 가결되고 결국 조선농민사는 분열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양측이 대립하게 된

13) 金道賢, “農村文藝와 啓蒙運動”(『조선농민』 1929. 3), p. 8.

14) 지수걸, 앞의 논문, p. 187.

핵심문제 중의 하나가 농민운동의 독자성 여부에 있었다는 점이다. 즉 이성환 측은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이 천도교청년당에 대해 독자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천도교 신파측에서는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이 천도교청년당이 이끄는 전체운동의 부문운동임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던 것이다.<sup>15)</sup>

이런 사정을 감안하고 보면 천도교청년당의 핵심간부였던 김도현의 윗 글은 전혀 다른 문맥에서 읽혀지게 된다. 이 글에서 김도현이 언급한 바 농촌계몽운동이 의지해야 할 “큰 집단의 힘”이란 다름아닌 천도교청년당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농민운동 내지 농민문학운동의 유기적 전체성을 강조한 것은 곧 그러한 운동을 천도교청년당에 완전히 예속시키고자 했던 천도교 신파측의 주장을 대변한 것이 된다. 여기까지 오면 김도현의 윗 글은 암암리에 천도교 신파측의 정치적 성향(민족개량주의)을 띠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특히 농촌문예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문맹퇴치를 위주로 한 농촌계몽운동 자체만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은 이 글의 성격을 민족개량주의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金基鎮은 “농민문예에 대한 초안”이라는 글에서 문학이론은 무엇보다도 구체적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문예운동 역시 역사적 의미나 제급적 근거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사명을 선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동자·농민에게 읽히겠느냐 하는 문제의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 경우 외국의 무산계급을 표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농민문학을 계급문단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삼고 그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은”<sup>16)</sup> 이 글의 주장은 그러니까 프로문학 측의 예술대중화론의 연장선 위에 놓이는 것이면

15) 박사지, 앞의 글, p.9, 또 이 글에 의하면 이성환은 예의 <법적판제안>이 통과·실행될 경우 조선농민사는 “農民運動의 本質을 遂成키 難한 것”, “世間の 反感을 招來케 될 것” 등의 有害點이 있다고 박사지에게 말했다고 한다(p.18). 이것은 이성환이 조선농민사가 천도교 청년당에 예속됨으로써 농민운동의 본질이 왜곡될 것을 염려했다는 점과 더불어, 당시 민족주의 좌파 또는 사회주의 측에서 천도교청년당의 운동노선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16) 권영민, 앞의 논문, pp.263~264.



서 또한 프로문학 내부의 교조주의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의 중요성은 농민에게 읽히는 작품을 쓰기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 농민문학의 창작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 제시된 방안 중 중요한 것은 농민문예가 “농민으로 하여금 봉건적 또는 소시민적 의식과 취미로부터 떠나서 서로 단결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점, “그들이(농민들이 : 필자) 귀로 듣기만 하고서도 용이히 이해할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는 점 등인데<sup>17)</sup> 이것은 곧 농민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농민문학 작품은 무산계급의 정신을 평이한 형식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그러나 과연 농민들에게 읽힐 수 있는 평이한 형식이란 무엇인가? 김기진이 말한 바 농민들이 듣기만 하고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이란 아마도 고대소설의 표현방식을 의미한 것인지도 모르거니와, 이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方定煥의 “각설 이때 식으로”라는 글이다. 방정환은 당시의 인쇄소에서 玉樓夢, 金太子傳 등의 고대소설이 많이 인쇄되고 있으며 그 독자가 몇 백만은 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內容은 現代의이로되 表現方式은 그 中에도 우선 글투를 거의 각설 이때에 式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sup>18)</sup> 생각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李慶孫은 “農人學校와 農人劇의 表現”(『조선농민』 1929. 3)에서 농민들을 가르치는데 연극을 이용함이 좋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崔獨鵬은 “農民解放과 農民文藝”(『조선농민』 1929. 3)에서 중농주의적 시각과 계급적 시각에서 농민문예는 농민해방의 문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 2. 농민소설

「조선농민」에 수록된 농민소설들 역시 농민문학론의 경우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경향으로 묶어 보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논의의 편의상 「조선농민」에 많은 작품들을 발표한 작가들(최인준, 명용준 등)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 작품들을 전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조선농민」의 농민소설들의 몇

17) 김기진, “農民文藝에 對한 草案”(『조선농민』 1929. 3), p. 3.

18) 방정환, “각설 이때 式으로”(『조선농민』 1929. 3), p. 9.

가지 경향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崔仁俊은 3편의 소설——〈大幹線〉(단편), 〈暴風雨前〉(중편), 〈兄弟〉(단편)——과 1편의 희곡——〈新作路에서〉——을 「조선농민」에 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은 모두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들로서 최인준을 「조선농민」의 최고의 작가로, 또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 농민소설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다. 〈大幹線〉은<sup>19)</sup> ××××주식회사(不二興業株式會社인 듯함: 필자)에서 너른 별판(평양도 지방인 듯함: 필자)을 개간하여 농민들을 이주시켰으나, 大幹線(이백여리 떨어진 강을 막아 끌어들이는 물이 별판을 지나가는 큰 줄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 농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대목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농민들은 너나없이 고향을 등지고 이곳까지 왔으나 생각하던 바와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멀었으니, 그들은 첫째부터 집, 소, 농구 등에 삼백여원의 빚을 지고 농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해가 바뀔수록 빛이 늘어갈 뿐만 아니라, 더우기 3년째부터는 농장에서 농량을 대어주지 않는 바람에 “이민들의 태반은 또다시 세포(洗浦)방면이나 북간도로 눈물을 뿌리며 떠나버린”<sup>20)</sup> 뒤였다. 주인공인 춘삼이 역시 고향(황해도 신재령 남호리)에서 수해를 입고 소작료와 각종 부담금에 견딜 수 없어 새 개간지인 이 거대한 농장으로 이민해 왔으나, 이민생활은 더욱 비참하여 끼니 꾸밀 것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춘삼이는 뜨거운 햇볕에 말라바린 대간선 길 위에 주저앉아 임신한 채로 굶어 죽은 아내를 생각하는 등 과거를 순서없이 회상하고, 또 앞으로 기한(飢寒)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릴 자신과 老母의 장래, 즉 “반드시 몸부림칠만치 저주할 「주림」의 역경”을<sup>21)</sup> 그러보며 문득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우리는 왜 주리는가? 또는 왜 이렇게 주리면서 이 놀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19) 〈大幹線〉은 작가의 출신지역과 관계있는 작품으로 생각된다. 최인준은 평양출생으로 진남포에서 소학교를 다니고 평양광성교보를 거쳐 경성의 보성교보 4학년 때 동맹휴학 사건으로 퇴학당하였다(〈新人紹介(1)——「황소」의 작가 崔仁俊君, 「조선문단」 1935. 4, p. 205 참조).

20) 崔仁俊, 〈大幹線〉(「조선농민」 1929. 6), p. 40.

21) 위의 작품, p. 41.

그의 머리 속에는 비로소 이런 의문이 일어났다. 우리는 아니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이전부터 대대로 빈한하지 않았는가? 우리들의 조상이 대대손손으로 물려준 오직 하나의 유산은 「주립」이 아니었던가? 하루 종일 아니 굶어 죽도록 일하고도 그 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주립 그것이 아니었던가?<sup>22)</sup>

이 대목은 한 농민이 자신이 속한 계급과 그 계급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눈뜨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무엇 때문에 그 저주스런 굶주림을 대대로 물려받아야만 되는가 하는 강한 의문은 농민으로서의 계급의식을 자각하게 되는 첫 단계인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그런 의식이 확고하게 형성되지 못한 채 분노의 감정으로 폭발되어 비극적 결말로 치닫게 된다. 춘삼이는 대선이로부터 웃동리(上村)의 대간선에는 물이 많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며, 또 실제로 웃동리에서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가마니를 싸고 있는 광경을 목도하고는 그 곳의 수도감시(水路監視)를 삼으로 찍어 죽이고, 그 자신도 사람들에게 못매를 맞고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드러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웃동리에만 물이 많은 이유는 “웃동리 백여호가 부치는 이백여정보가 전부 ××농장의 소유지이고 아랫동리의 논은(……) 농사짓는 사람이 조선인인 관계상 농장이나 수리조합은 언제든지 이 웃동리를 중심삼고 있기”<sup>23)</sup> 때문이었다. 이와같은 민족차별은 대농장이 일본 주식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당시의 농민들이 소위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농지확장이라는 이름 밑에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sup>24)</sup> 이렇게 볼 때 춘삼이의 저항과 죽음은 실로 그렇게 되고야 말 필연성을 지닌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개인적 차원의 절망적 저항에 그쳐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상당히 극복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보인 것이 같은 작가의 작품인 〈暴風雨前〉이다. 이 작품은 중편소설인 만큼 〈大幹線〉에

22) 위와 같음.

23) 위의 작품, p.43.

24) 不二興業株式會社 등에서는 간척지를 개간하여 수리조합을 설치할 때까지 농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일단 토지개량에 성공하면 그 토지를 미리 점유한 후에 일본인을 이주시키고 한국인은 소작농으로 만들었다(조동걸, 앞의 책, p.100 참조).

비해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두 개의 대립이 서로 엇물려 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서분녀를 둘러싼 경호(소작인의 아들)와 정국(농감의 아들)의 대립이며, 다른 하나는 경호를 중심으로 한 소작인들과 표농감(지주인 박진사의 대리인)을 중심으로 한 지주층의 대립이다. 그러나 경호와 정국의 대립은 사실상 소작인들과 지주층의 대립을 첨예화시키기 위한 방편적인 의미를 띠고 볼 수 있다.<sup>25)</sup> 정국이 회교회를 이용하는 등 여러가지 수단으로 서분녀에게 접근하는데 대해 경호는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고민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의 대립은 힘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립이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무산자인 소작인들과 유산자인 지주들의 대립에 수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이 소설은 경호의 의식의 진전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전반부는 경호가 집을 나가기 이전까지의 부분이고 후반부는 경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후의 부분이다. 전반부에 있어서의 경호의 의식이 지주나 농감에 대한 감정적 분노에서 비롯된다고 한다면, 후반부의 그것은 이 세상의 불공평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호는 수작인들의 중심인물로 활동하고 있는 까닭에, 이 소설에서의 소작인들과 지주층의 대립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그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며, 따라서 그 해결방법 역시 상당한 차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 소설의 전반부는 경호의 백부인 송침지가 부치는 소작논에 동네 일꾼들이 모여 모를 내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망종이 지나고 하지가 가까와도 비 한방울 없는 가뭄에 농민들은 올해도 흉년이 될 것 같아 몹시 불안할 느낀다. 이런 판국에 읍내 지주에게 갔다온 표농감은 50여 명의 소작인들을 모아놓고, 고추값으로 쌀 한 포대씩 주겠다고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지주(박진사)의 말을 전한다. 속은 줄을 안 농민들은 내심 크게 분노하지만, “지주의 말이라면 그저 황송해하는……몇천년

25) 물론 이 대립에는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경호는 아버지의 강권에 의해 얻어온 소박메기를 돌보지 않고 서분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정국 역시 아내와 이혼하고 서분녀에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여기에는 결혼제도(조혼)로 대표되는 봉건유습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기도 한 것이다.

몇만년 굳게 뿌리박힌 노예근성”<sup>26)</sup> 때문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한다. 경호만이 겨우 한마디 항의하나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정국과 서분녀가 머지않아 결혼하게 된 것을 직감한 경호는 번민 끝에 집을 뛰쳐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패배를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아무런 전망도 시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도피 행위는 이 소설의 전반부에 있어서의 소작인과 지주의 대립이 소작인(경호)의 계급적 자각 이전의 대립이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파악된다.

결국 경호는 도시생활에도 절망을 느끼고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 소설의 후반부가 시작된다. 집에 와서도 술주정을 일삼던 경호는 이내 각성하여 술을 멀리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솔이 되어 추수를 했으나 대흉년인 데다가 타작관과 표농감의 감시가 지독하여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충격적인 현실 때문이었다. 경호는 “농사라고 한번도 돌아보지 않는 박지주는 어째서 이것을 독점할 권리가 있는가?”<sup>27)</sup> 강한 의문에 “무엇을 좀 알아보겠다는 새로운 욕망”이<sup>28)</sup> 일어나 농민에 관한 책을 보게 된다. 마침내 경호는 읍에 가서 ××농민사(조선농민사인 듯함: 필자)를 찾아 간부인 이철혼(李哲魂)을 불러 강연을 듣는다. 그러나 이철혼의 이야기 도중 순사부장, 표농감 등이 들이닥쳐 이철혼과 경호를 끌고 나간다.

「오——열려말아」

가슴 속에서 확확 타는 불덩이를 안은 채로 경호를 바라보던 친구가 맞받아서 대답하였다. 그것은 이 마당 가운데 모인 모든 작인들의 할 말을 혼자서 대표한——그리고 그들에게 놀리움과 빼앗김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없어지지 않을 힘찬 대답이었다. (……) 그리고 움쭉하지 않고 서 있는 여러 작인들의 침묵은——마치 폭풍우전(暴風雨前)의 그것과 같이 장차 무슨 크나큰 기적 아닌 기적이 폭발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sup>29)</sup>

26) 최인준, <폭풍우전> (『조선농민』 1929. 10), p. 47.

27) 위의 작품 (『조선농민』 1929. 12), pp. 59~60.

28) 위의 작품, p. 60.

29) 위의 작품 (『조선농민』 1930. 1), p. 63.

이것은 경호 등이 잡혀갈 때의 장면을 묘사한 이 소설의 마지막 대목이다. 이와같은 집단적 저항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경호를 중심으로 한 소작인들이 계급의식에 눈떴기 때문이다. 즉, 어떤 변혁을 예고함으로써 의미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이 소설의 결말은 후반부에 있어서의 소작인과 지주의 대립이 소작인의 계급적 자각 이후의 대립이었던 까닭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더우기 작가는 북간도로 떠날 수도 없고 고향에 머물 수도 없는 농민들의 처지와 정국과 서분녀의 결혼잔치를 며칠씩이나 계속하는 지주층의 모습을 대조시켜 둠으로써<sup>30)</sup> 이러한 결말의 필연성을 미리 확보해 놓고 있는 것이다.

明容駿은 최인준과는 다른 의미에서 주목되는 작가이다. 赤道生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기도 한 그는 「조선농민」에 〈底流〉, 〈피뺀아먹는 도깨비〉, 〈금광 아버지〉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 논의의 대상이 될만한 작품은 중편소설인 〈底流〉이다. 이 작품은 칠성동이라는 농촌의 청년들이 망국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농민들을 계몽하여 새 활기를 불어넣고, 칠성동을 이상적 농촌으로 변화시켜 대지의 웃음을 자아내도록 노력한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주인공인 영만은 사립학교를 마치고 외국에 갔다가 칠성동으로 돌아와 농촌계몽운동의 중심인물로 활약한다. 그는 칠성동에 돌아온 후, “부모에게는 효도가 극진하였고 형제간에는 우애가 깊었고 친구들 사이에는 미더움이 두터워서”<sup>31)</sup>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게 된다. 어느 날 영만은 동네 청년들로부터 칠성동의 무기력하고 비참한 현실을 타개해 나갈 방도를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첫째 나를 믿고 둘째 내 의견을 듣고 셋째 마음을 번치 말 것을 요구한 다음, 함께 신생활을 세우는 역군이 되자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데 보란 말이야. 우리나라에는 사색당론인가 부언가 경매소에 나가면 서

30) 가령, “오락물의 소유는 권력있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다섯 명의 기생은 박진사, 김면장, 순사부장, 보통학교교장, 표농감의 품에서 밤새도록 아양을 떨었다”(위의 작품, 「조선농민」 1930. 1, p. 57)라는 부분은 여기 제시된 다섯 사람이 당시 농촌사회의 지배구조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못 흥미로운 대목이다.

31) 명용준, 〈저류〉(「조선농민」 1927. 8), p. 44.

문도 못받을 것이 사백여년 동안이나 조선 사람의 머리를 증독시켜 오기 때문에(……) 국가의 추밀(樞密)에 당하는 소수계급인 소위 유사(有司)가 당색 가리기에 볼 일을 못 보았으며 양반 자랑에 겨움이 없었으니……<sup>32)</sup>

나라가 망하여 식민지로 전락한 원인을 영만은 이렇게 제시하면서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인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한다. 모여 있던 청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새로운 결심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서로간의 단단한 약속 아래 ‘팔팔(八八)청년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농촌계몽운동을 벌여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이 숨어 있다. 우선 영만이는 농촌지도자로서 과도하게 영웅화되어 있고, 따라서 청년들이 영만의 ‘인격’의 힘에 의해 감동·설득되는 과정에 신빙성이 없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 개인의 영웅화가 농민운동의 관념화를 초래하기 쉽다는 점 때문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 소설은 그 구성과 전개과정에서 현실성을 전혀 지니지 못하고 있다. 칠성동의 농민들은 영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그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거기에는 어떤 반발도 나타나지 않으며, 갈등의 기미조차 없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설정된 지도자는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가 아니다. 다음, 사색당쟁 운운하는 위 인용의 내용이 문제된다. 식민지로 전락한 원인을 민족내부에서 찾고자 하는 반성적 측면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그것은 자칫 제국주의 논리에 흡수될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처럼 사색당쟁을 운위하며 민족성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사관과 같은 맥락의 논리인 것이다. 이 점을 위에 언급한 ‘인격’의 강조와 연결시켜 보면, 결국 이 소설은 일제의 문화정치의 기만성에 동조했던 민족개량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라 쓰여진 작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sup>33)</sup>

이런 경향의 작품이니만큼 그 결말은 미리 정해져 있는 셈이다. 칠팔년 뒤에 칠성동은 팔팔청년회의 계몽활동에 따라 새 활기를 얻게 되고,

32) 위의 작품, p. 48.

33) 이 소설에 나오는 ‘팔팔청년회’는 이광수의 “民族改造論” 중에서 改造의 方法으로 제시한 소위 ‘改造同盟’을 연상시키는 단체이다(李光洙, “民族改造論”, 「개벽」 1922. 5, p. 64 이하 참조).

뽕나무 심기, 돼지치기, 산삼기, 새끼꼬기 등의 부업이 장려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면서 이상적 농촌에 가까워진다. 뿐만 아니라 공동경작에 따라 점점 그 수확이 늘어가니 어려운 농가는 물론 지주도 이를 환영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손쉬운 거짓 화해의 결말이다. 이러한 결말은 식민지 농촌의 피폐한 현실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을 놓친 데서 오는 결과인 것이다. 더우기 “아무렴 조선팔도가 다 우리 동네와 같이만 하면 꼭 되지. 꼭 돼.”<sup>34)</sup> 하는 식의 근거없는 낙관주의는 농민들의 민족의식 내지 계급의식을 약화시키고 다만 자기 반성, 자기 개조를 통해서만 농민해방에 도달할 수 있다는 헛된 환상에서 연유한 거짓 전망인 것이다.

한편, 「조선농민」에 실린 소설들과 많은 소품들 중에는<sup>35)</sup> 농민들에게 흥미있는 읽을거리로서 제공된 작품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작품들은 특히 독자로서의 농민이라는 측면에 유의하여 우선 농민들에게 읽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단지 농민들에게 오락물만을 제공한다는 의미에 국한된 것들은 농민문학의 범주에 넣기 어렵다. 가령 趙白蕝의 <乙龍池의 哀話>(「조선농민」 1926. 10), 金振九의 <망신당한 고자大監>(「조선농민」 1929. 3) 따위의 작품들은 농민들에게 재미있게 읽혀졌을지는 모르나, 민족의식 내지 계급의식으로서의 농민의식이라는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런 흥미거리 속에 미신타파의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들은 적어도 농민계몽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sup>36)</sup> 가령 任英彬의 <조리돌리는 사람>(「조선농민」 1925. 12), <구박>(「조선농민」 1926. 1), 方定煥의 <귀신먹는 사람>(「조선농민」 1926. 3)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런데 「조선농민」의 소

34) 명용준, 앞의 작품(「조선농민」 1927. 12), p. 31.

35) 「조선농민」에 수록된 많은 小品들은 주로 대화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와같은 형식은 구한말에 많이 나타났던 단형서사의 전통에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6) 일제의 소위 문화정치는 종교정책의 일환으로 기성종교단체를 약화시키기 위해 유사종교를 적극 장려·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미신사교단체에 첩보활동을 시키고 친일여론조성에 이용하였다(강동진, 『日帝의 한국침략정책사』, 한진사, 1980, p. 392 참조).



설들에서 미신타파의 주제가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천도교의 포교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 가령 朴達成의 〈七星이의 日記〉(『조선농민』 1929. 3)와 같은 작품은 천도교의 포교를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점 「조선농민」이 천도교청년당의 의곽조직인 조선농민사의 기관지로서의 성격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체로 이러한 종류의 작품들에는 천도교 신파측의 정치적 성향, 즉 민족계량주의가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 Ⅲ. 「농민」의 농민문학론과 농민소설

앞에서 잠깐 비쳤듯 1930년 4월 제3차 전국대표자대회에서 〈法的關係案〉이 통과됨으로써 조선농민사는 명실공히 천도교청년당의 하부조직으로 개편되고, 이에 반발한 이성환 측이 대거 탈퇴하여 따로 ‘全朝鮮農民社’를 결성하게 된다. 이로써 조선농민사는 ‘조선농민사’와 ‘전조선농민사’로 양분되는 것이다. 이 중 ‘전조선농민사’는 ‘조선농민사’와는 다른 단체성격을 지니고 1931년 2월 定平赤色農組 사건 때 위문사절단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을 했으나<sup>37)</sup>, 총독부의 탄압과 자금난으로 인해 점차 소멸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농민사’는 사세를 확장하고 기관지인 「농민」을 발행하면서 농촌계몽운동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나 분열 이후의 조선농민사의 농촌운동은 천도교 신파측의 민족계량주의적 성격을 더욱 노골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여기서 소위 〈法的關係案〉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천도교 청년당 대표인 金起田 측에서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들고 나왔으나<sup>38)</sup> 이것은 조선농민사를 천도교청년당의 완전한 예속단체로 만들기 위해 내세운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했다. 그런 만큼 조선농민사의 중앙이사장이었던 李晟煥 측에서 〈法的關係案〉이 조선농민사의 본질을 파괴하고 사원의 자주권을 박탈한다고 항의한 것은<sup>39)</sup> 당연한 일이었다. 분열 이

37) 지수길, 앞의 논문, p.190.

38) 박사지, 앞의 글, p.9 및 鄭應璉, “法的關係問題에 對하여 社員 여러분께 告합니다”(『農民』 1930.10, p.17) 참조.

39) 박사지, 앞의 글, p.27.

후 '전조선농민사' 측에서는 천도교청년당의 농민운동을 가리켜 布敎政策을 위한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한 바 있다.<sup>40)</sup> 그런데 이같은 조선농민사의 분열은 좀더 근본적인 맥락에서 볼 때 민족주의 우파와 민족주의 좌파간의 대립의<sup>41)</sup> 연장선상에 놓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천도교의 신구 분열은<sup>42)</sup> 사실상 일제의 기만적 문화정책의 일환인 종교의 어용화 정책에 따라 崔麟 등의 민족개량주의자들에 의해 획책된 것이기 때문이다.<sup>43)</sup> 이러한 사정은 "1934년 이후 농민사운동이 판계농민운동인 농촌진흥운동에 별다른 파찰없이 흡수되어 갔다는 사실"에서도<sup>44)</sup> 확인된다.

이렇게 볼 때 분열 이후의 조선농민사의 기관지였던 「농민」에 수록된 농민문학론과 농민소설은 「조선농민」의 경우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천도교 신파측의 정치적 성향(민족개량주의)을 드러내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조선농민」의 농민문학을 검토한 예에서와 같은 이유에서 조선농민사의 단체성격과 「농민」의 농민문학의 성격이 서로 일치한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 1. 농민문학론

이미 살펴본 「조선농민」의 농민문학론들과 마찬가지로 「농민」에 수록

40) 李成烈, “宗派群의 農民運動”(「조선농민」1930.6), p.10.

41) “식민지시대의 민족부르조아지들은 제국주의에 대해 타협적이었느냐 아니면 비타협적이었느냐 하는 점(즉 자치론자였느냐 아니면 절대독립론자였느냐 하는 점), 또는 사회주의자들과의 정치적 연대를 거부했느냐 아니냐(즉 신간회운동에 참여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우익민족부르조아지(우익민족주의자 또는 민족주의 우파)와 좌익민족부르조아지(좌익민족주의자 또는 민족주의 좌파)로 구별된다”(지수걸, “1930년대 초반기 사회주의자들의 민족개량주의운동 비판”,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실태와 전망」, 역사비평사, 1988, p.268).

42) 1925년 4월 천도교 신구파의 분열 이후 1930년 12월 잠시 合同하였다가 1932년 4월 소위 敎祖문제로 再分裂되는데, 이제의 사정에 대해 한 時評家は “청년당이 계급협조에 입각하여 「당면이익」을 부르면서 農民層을 吸收하여 민족개량주의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하고(白木生, “天道敎派機構의 解剖”, 「新階段」1933.1, p.80), 천도교 신구파의 재분열은 “崔時亨과 全泰準과 分裂된 것과 孫秉熙와 李容九과 分裂된 것과 崔麟과 權東鎭과 分裂 等等”과 같이 政治的 分해의 작용이라고 말하고 있다(p.81).

43) 강동진, 앞의 책, p.391.

44) 지수걸, “조선농민사의 단체성격에 관한 연구”(「역사학보」1985.6), p.207.

된 농민문학론들 역시 어떤 하나의 체제 속에 묶어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논문 안에서조차도 관점의 혼란이 노정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 따라서 「농민」의 농민문학론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글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농민」에 농민문학론을 발표한 중요한 필자는 白民, 한빛, 林然, 許日 등이다.

白民(白世明)은 “농민문학을 건설하자”라는 글에서 농민문학이란 ①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작가에 의해 지어진 문학이며 ② 농민의 생활현실을 재료로 한 문학이고 ③ 농민이 읽을만한 평이한 문학이며 ④ 농민의 원기를 진작시키는 문학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차례대로 농민문학의 창작주체, 농민문학의 소재, 농민대중을 위한 농민문학의 형식, 농민문학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①과 ④이다. ①의 경우 白民은 농민이 아닌 작가라도 농민의 입장에서 작품을 쓴다면 그것은 농민문학이 될 수 있겠으나, 체험의 부족으로 인해 참된 작품이 나오기 어려운 까닭에 결국 농민문학의 작가는 순수농민작가라야 한다고<sup>45)</sup>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농촌사회의 상황과 문학적 조건에 비추어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된다. 순수한 농민 가운데서 좋은 작품을 쓰는 작가가 나온다면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당시의 사정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 비농민작가라 할지라도 작품창작태도에 따라서는 농민문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요컨대 농민문학의 창작주체에 관한 논의는 농민작가가 배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sup>46)</sup> 동시에, 농민문학의 발전에 지식인 작가(전문작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白民의 이 글에서 더욱 큰 문제점을 지닌 것이 ④의 경우이다. 백민은 농민문학이 농민의 원기를 진작시키는 문학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45) 白民, “農民文學을 建設하자”(「농민」1932.8), p.3.

46) 이 문제에 관해서는 프로문학 측에서 있었던 소위 농민문학논쟁 중에 安畝光이 농민출신작가의 진출을 위한 방법으로 농민통신원운동 등을 제기하면서 언급한 바 있다(安畝光, “농민문학문제재론”, 「조선일보」1931.10.31).

조선사람에게 무슨 병통이 있느냐 하면 늘근한 것——즉 元氣不足症이 그것이라 하리라. 本來의 조선민족은 그렇게 늘근하지 않았건마는 과거에 있어 불교의 극단의 唯心思想과 유교의 文弱弊害로 말미암아 조선민족의 그 활발하던 원기는 그만 아주 과산을 당하고 말았다.——게다가 우리 농민은 그 중에서도 과거 수백년 동안을 특권계급들에게 눌리워 왔으므로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인간성은 모두 잃어버리고 그만 奴隸性化한 편이 많다.<sup>47)</sup>

이런 투의 논리는 아무래도 민족개량주의자들의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서 조선사람의 병통으로 지적되는 원기부족증(늘근함), 이것은 곧 조선민족은 어쩔 수 없는 민족성을 지녔다는 결론에 떨어지기 쉬운 자기 비하의 표현인 것이다. 그 원기부족증이 특히 농민들에게 심하게 나타나 농민들이 그만 노예화되었다는 발언은 농민노예화의 근본원인을 호도하고 식민지 시대 전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항쟁했던 농민들의 저항의식을 터무니없이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백민이 이 글에서 농민문학건설의 구체적 방안으로 조선농민사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농민문학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조선농민사의 단체성격(즉 농민운동의 성격)과 이 글의 논리는 민족개량주의라는 점에서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농민문학은 오락적 유희품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참혹한 처지에서 새로운 생활을 전개하려는데 한 X器를 장만하는”<sup>48)</sup> 것이라고 다소 급진적인 듯한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농민문학건설운동을 경제운동과 교양운동에 문학운동을 덧붙이는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것은 이 글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 것인지를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한빛(一光)은 “田園文學과 農民文學”이라는 글에서 이 둘은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전연 反對的 見地에서 출발된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전원문학은 도시생활자들에게는 청량제적 역할을 하지만, 농민에게는 하등의 감흥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전원문학은 도시의 식자계급 중에서도 有產有閒階級이 쓰는 것이며, 따라서 그 문체도 달콤하고 향긋한 것만을 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원문학에 대해 농민문학은 어떤 것인가? 한빛에 의하면 “일반농민의 과중한 부담, 도시문명의 X

47) 백민, 앞의 글, p. 4.

48) 위의 글, p. 5.

×, 外來資本의 土地兼併, 自作農層의 급격몰락, 지주계급의 無理××, 소작농민의 窮民化, 궁민의 流離 등등의 이 모든 참상”<sup>49)</sup> 속에서의 농민의 외침, 그것이 곧 농민문학의 발생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문학의 내용은 농민이 그렇게 된 원인을 비판하고 농촌을 진흥시킬 방법을 담아야 하며, 그 형식도 굵직굵직하고 굳세고 평이한 문체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비교적 평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전원문학을 부정하고 농민문학을 제창하는 당위성을 농민의 생활현실 속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빛은 연극을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자는 요지의 “농민극을 창시하자”(「농민」 1933. 1)라는 글을 발표하고, 곧 이어서 “가요와 농민”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조선사람은 유교에 중독되어 노래를 모른다고 지적하고, 노래의 효과로서 ① 사람의 원기를 썩씩하게 하며 ② 협동적 정신을 함양하고 ③ 진취성을 강하게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중 ②의 경우, 조선사람의 병폐로서 단결심의 파산과 극단적 이기주의를 들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 가요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 점 앞서 언급한 민족개량주의의 편린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조선에서 재래로 부르던 노래나 새로 유행하는 노래는 음란하고 비판적이어서 해롭다고 지적하고, 가령 ‘동해물과 백두산이’ 또는 최수운의 ‘검가’가 조선사람을 살릴 만한 기개가 있어 유익하다고 함으로써 민족적 시각을 내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한편, “아직껏 社歌(조선농민사의 사가: 필자) 하나도 완전히 지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유감이 아닐 수 없다”<sup>50)</sup> 하여, 조선농민사의 농촌계몽적 관점에서의 가요의 보급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林然(林玄極)은 “농민문학의 신규정”이란 글에서, 조선농민사 측에서 그동안 논의된 농민문학과 관계되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이 글은 “조선농민사측 농민문학론의 도미를 장식하는 것”이라는<sup>51)</sup> 평가를 받았으며, 아울러 이 글에 나타난 전체와 부분에 관한 변증법적 인식이 “입연을 농민사 최고의 이론가로 평가받게 하는

49) 한빛, “전원문학과 농민문학”(「농민」 1932. 12), p. 28.

50) 한빛, “가요와 농민”(「농민」 1933. 3), p. 37.

51) 최원식, 앞의 논문, p. 68.

가장 탁월한 부분”이라고<sup>52)</sup>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 글은 모두 일품까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① ‘理論과 實際’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③ ‘농민문학과 유사예술’과 ⑤ ‘농민문학의 內容과 形式’은 지금까지 다른 농민문학론을 검토하면서 논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② ‘농민문학의 의의’ ④ ‘농민문학의 근본적 성질과 재료’ ⑥ ‘농민문학과 농민문학운동’ ⑦ ‘조선농민사와 농민문학 및 그 운동’의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임연은 ②에서 기성문화는 자기 해체의 과정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해 농민문학은 농민계급의 生長에 의하여 새로운 예술의 하나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어서 “농민문학은 농민의 역사적 지위와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농민이나 인텔리가 농민을 위하여 쓰는 문학”이라고<sup>53)</sup> 정의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우선 농민문학의 계급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농민문학에서의 농민은 역사적으로 규정된 농민임을 인식했다는 점, 나아가 농민문학의 창작주체로서 농민작가와 지식인 작가의 역할을 동시에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또 그는 ④에서 농민문학의 근본적 성질은 농민적·사회적·집단적·동지적·낙관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농민문학의 재료는 농민의 환경과 생활인 바 그것을 묘사함에 있어서 원인·현상·결과의 관계를 밝히는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견해 역시 농민문학의 사회적·집단적 의의를 지적했다는 점, 농민계급의 몰락현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 그리고 농민문학의 실천적 성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대체로 임연의 이 글은 당시 조선농민사의 농민문학론들을 망라한 것이면서 그로부터 한 걸음 전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⑥과 ⑦에서 임연은 농민문학과 농민문학운동의 관련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농민문학이 농민층의 성장과 함께 자연적으로 성장하면 “自由放奔한 농민문학”, “버릇없는 농민문학”이 되므로, 그것을 비판·정리·조직하기 위하여 의식적·계획적인 농민문학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농민문학운동은 농민운동의 하나요 농민문학운동

52) 김명인, 앞의 논문, p. 228.

53) 林然, “農民文學의 新規定”(『농민』 1933.1), p. 50.

의 표현인 농민문학은 농민운동의 한 표현으로” 된다는<sup>54)</sup> 것이다. 이러한 견해 역시 농민문학의 위상을 운동적 측면에서 고찰한 결과로서 그 자체로는 정당한 것임에 틀림없다. 농민문학(운동)은 민족·민중문학의 부분문학인 동시에 농민운동의 부분운동으로서 결국에는 민족·민중운동에 수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글에서 언급된 농민문학운동이 과연 어떤 성격의 농민운동의 하위 범주인가 하는 점에 있다.

조선농민사는 농민문학운동을 농민운동의 하나라고 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조선농민사로서의 농민문학운동은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과 본뜻가 다름이 없는 까닭이다. (……) 농민사는 당의 지도를 받는 만큼 당의 지도원리에 맞아야 하며 농민운동이 전체운동을 위한 그 부분적 운동인 것처럼 농민사로서의 농민문학운동은 농민운동을 위한 그 부분적 운동이란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작가는 당과 사의 모든 지시에 좇아야 하며 혹은 명령에 의하여 창작을 하기도 해야 한다.<sup>55)</sup>

농민문학운동과 관련된 전체와 부분의 인식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농민사가 분열될 때의 천도교 신파측(천도교청년당)의 논리 그대로인 것이다. 그렇다면 농민문학운동이 농민운동을 위한 부문운동이라는 주장은 특히 분열 이후의 조선농민사의 입장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이 글이 발표된 시기에는 이미 친일적 경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민족개량주의를 농민문학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고 만다. 이렇게 보면 위의 인용에서 작가는 당과 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당과 사의 명령에 의해 작품을 써야 한다는 엄중한 규율의 주장은<sup>56)</sup> 어찌면 당시에 있어서 프로문학측의 농민문학과와의 경쟁관계를 의식한 발언인지도 모른다.<sup>57)</sup>

54) 위의 글(「농민」 1933. 2), p. 28.

55) 위와 같음.

56) 위에 검토되었지만, 「농민」에 수록된 농민소설들의 상당수가 천도교청년당과 조선농민사의 활동을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입연의 이같은 주장과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7) 이와 관련하여 金友哲의 “雜誌「農民」一派의 農民文學論批判”(「조선중앙일보」 1933. 10. 4~10. 8)이라는 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우철은 이 글에서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전당인 천도교란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 잡지 「농민」 일파인 許日, 一光, 林然, 白民 등의 농민문학론을 반동적 이론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그것을 노동자·빈농 대중 앞에 폭로해야 한다고

이 밖에 「농민」에 농민문학과 관련된 글을 발표한 필자는 許日과 林海彰이 있다. 허일은 “농민시작법”(「농민」 1932. 8~9)과 “농민소설 짓는 법”(「농민」 1932. 11)을 발표하였는데, 크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닌 듯하다. 다만 농민소설의 형식이 動力的이 아닌 沈漫한 형식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농민의 생활이란 전원적이고 調子(調子)가 없고 한만하고 유구한 생활”이기<sup>58)</sup>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농민들의 생활이 대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는 데서 나오는 오류이다. 임해창은 “文學農民들에게”(「농민」 1933. 3)에서 시인으로서의 수양과 인격, 그리고 정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민족개량주의의 편린이 드러난 것으로 생각된다.

## 2. 농민소설

「농민」의 농민소설들은 그 수록된 양에 비해 크게 주목을 끌만한 작품들이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농민사측의 농민문학의 성격과 경향을 살펴보는 데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농민」의 농민소설들에 대한 검토 역시 「조선농민」의 작품들을 살펴본 예에서와 같이 많은 작품들을 발표한 작가들의 것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농민」에 가장 많은 소설을 쓴 작가는 같은 잡지에 농민문학론을 발표하기도 했던 一光(한빛)과 許文日(許日, 許三峰)이다.

一光의 〈봄철〉은 농민의 참담한 생활 현실을 드러내면서 농촌 궁핍화의 원인을 제시하고 또 그 해결방법을 나름대로 모색하고자 한 작품이다. 주인공인 경득이는 23세의 청년으로 아내와 어린아이 둘이 있으며, 지주인 구참봉네 논 두섬지기를 소작하고 있다. 빛이 많은 탓에 모친은 약도 못쓰고 죽었고, 봄철이 돌아오는데 양식이 없어 사흘째 굶고 있는 처지이다. 경득은 양식을 꾸러 참봉 영감택에 여러번 갔었지만 거절당하고는 밤이 깊어 참봉네 곳간으로 쌀을 훔치러 간다. 그런데 이때 이

주장하였다. 김우철의 「농민」 일파'에 대한 비판이 전부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선농민사측 농민문학론의 성격을 상당부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당시에 있어서 양측의 농민획득경쟁이 이와같이 농민문학론에도 나타난다는 것은 자못 흥미로운 사실이다.

58) 허일, “농민소설 짓는 법”(「농민」 1932. 11), p. 41.



웃 동리에 사는, 경득과는 내외종간인 영민을 만나는 것이다. 영민은 경득에게 농민들이 궁핍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그 궁핍을 벗어나기 위해 궁민구제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영민은 이미 자기 동리에서, 궁민구제조합을 만들어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을 경득에게 맡기고 자기는 다른 동리에 가서 구제조합을 설치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면 영민이 말하는 궁민구제조합이란 어떤 것인가?

물론 저리자금능통 그것만 가지고는 그만한 숫자적 여산이 서지 않는 것이오 그외에 허문번폐를 폐지시키고 산업을 진흥시켜서……지주와 타협하고서 치전치답도 되고 부업으로 소치고 돼지치고 닭치고 하여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거기서 생기는 비료로써 외국비료를 대신하는 것과 공동경작을 실시하여 동민의 부담을 그것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으로써는 농민야학을 설립하고 완고한 동민들에게 새로운 정신을 넣어주며 학령에 달한 무식 아동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렇게 하여 농민들의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지출을 무척 줄여서 거기서 남는 것으로 대부저리자금상환대금액에 보태고 보태고 하노라면 십년 이내에 완전히 갚을 수 있는 숫자적 여산이 성립된다는 것이다.<sup>59)</sup>

영민이 궁민구제조합을 설치하여 농촌의 궁핍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이 대목에 제시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농민들에게 근면과 절약을 요구하는 것, 다시 말해 농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식민지체제 하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농촌의 현실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상은 농촌 궁핍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유달리 강조하여<sup>60)</sup> 암암리에 그 참담한 가난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끔 하려는 태도와 맞물려 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이같은 호도책을 내세워 당시 농민들의 저항의식을 약화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면 이 작품이 민족개량주의자들의 농촌 현실에 대한 접근태도에 의해 쓰여진 것임을 짐작하게 된다. 사실 위의 인용부분에서 언급된 산업진흥, 지주와의 타협, 공동경작, 농민야학 등은 1931년 이후 조선농민사에서 조직하여 실시한 농민공생조합운동과 관련되는 내용인 것이다. 이 소설에서 영민이 구제조합설치에 분명한

59) 一光, <봄철> (『농민』 1932.9), p.61.

60) 위의 작품, p.59.

것 또한 조선농민사의 사세확장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되거니와<sup>61)</sup>, 요컨대 이 작품은 천도교 신파측의 정치적 성향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만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결말이란 “쓰러져가는 농촌 죽어가는 농촌을 다시 세우고 다시 살리는 기운은 대지의 봄풀같이 자라는 것이었다——환희의 「봄철」이었다”라고<sup>62)</sup> 하는 허망한 낙관주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許文日의 〈自主村〉은 조선농민사의 민족개량주의적 농촌운동을 가장 충실히 대변한 소설이다. 그 줄거리는 몇해 전까지 피폐한 동리였던 청계동(淸溪洞)이 일민(一民)이라는 청년의 계몽활동으로 인해 살기좋은 동리(自主村)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일민은 일본 유학까지 한 후 서울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으나 실패하고, 과도한 독서로 신경쇠약에 걸려 시골 누님집에 왔다가 농촌의 참담한 현실을 보게 된다. 그는 농촌을 일으켜야 한다고 결심하고 천도교청년당의 농촌운동에 참여하여 청계동에 동농민사를 조직한다. 그리하여 농민학원을 짓는 한편, 공동경작을 실시하고 농민공생조합을 운영하여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는다는 것이다. 그런 뒤 동농민사 조직 5년째 기념일에 일민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고 청계동을 떠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잘 싸워왔습니다. 미신과 싸우고 빈곤과 싸우고 습관과 싸우고……모든 방면으로 싸운 결과 오늘날 이만한 성과를 얻은 것은 너할 수 없는 우리들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금년에 군농민사에서는 이 동리를 모범동사로 추천하기로 되었답니다. 우리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동리 뿐만 아니라 이웃 동리 나아가서는 온 조선의 모든 동리들까지 이 동리처럼 좋은 동리를 만듭시다.<sup>63)</sup>

이 대목은 이 소설이 조선농민사의 농촌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쓰여진

61) 一光은 다른 작품에서도 조선농민사의 농민공생조합의 운영문제(〈꿈에 본 ××농민공생조합〉, 「농민」 1932.10)와 조선농민사의 간부(지도자)의 죽음(〈指導者의 죽음〉, 「농민」 1933.4)을 다루고 있다. 또 一光은 다른 작품에서 만주이민들의 생활(〈避亂民〉, 「농민」 1932.11)을 다루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민족개량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만주동포구제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62) 一光, 〈봄철〉(「농민」 1932.9), p.7.

63) 허문일, 〈자주촌〉(「농민」 1933.8), p.58.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미신과 싸우고 빈곤과 싸우고 습관과 싸우고……”라는 부분은 곧 미신의 타파, 빈곤의 극복, 봉건잔재의 불식이라는 이 소설의 주제를 암시한다. 이 중 미신타파와 봉건잔재불식을 문화적 계몽운동이라고 한다면, 빈곤극복은 경제적 자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은 일민이라는 주인공의 영웅화로 인해 공허한 교훈주의로 떨어지고, 그것은 결국 민족개량주의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거없는 낙관주의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위에 언급된 세가지 주제 중 경제적 자립운동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소설에서 강조되어 있는 공동경작, 농민공생조합 등<sup>64)</sup>은 비단 이 소설 뿐만 아니라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과 관련되는 작품들에서 자주 운위되는 것인데, 이같은 경제운동은 대체 어디서 연유한 어떤 성격의 것인가? 1929년 12월 民衆大會事件으로 인한 검거 이후 현저히 우경화한 신간회의 간부들은 소위 ‘조선민족의 당면이익을 위한 투쟁’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조선농민사 측에서도 ‘농민당면이익 획득운동’을 전개하였으니, 이것은 곧 신간회 우경간부들의 주장과 정치적 지향을 같이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위 ‘자치운동’과도 같은 맥락의 운동이었던 것이다.<sup>65)</sup> 그런 연유로 결국 조선농민사는 “체제내적·개량적 운동으로 농촌에서 기반을 닦음으로써 1930년 이후 점차 격화되는 반제투쟁과 사회주의자들의 적색농민조합운동에 대한 안전관적 역할을 수행”했던<sup>66)</sup> 것이다. 말하자면 민족개량주의 운동의 한 가닥인 ‘농민당면이익 획득운동’의 구체적 모습이 공동경작, 농민공생조합 등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이것이 또한 「농민」에 수록된 다수의 농민소설들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니, 이 점 〈自主村〉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sup>67)</sup>

한편, 이 소설에서 자못 흥미로운 부분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필시 사회주의 측과 민족개

64) 위의 작품, p. 56.

65) 지수철, 앞의 논문, pp. 188~200.

66) 김현숙, 앞의 논문, p. 260.

67) 이 밖에도 허문일은 천도교인이요 농민사원인 이서방을 부각시킨 〈乞人〉(「농민」1932. 3), 일제의 色衣장려에 호응한 〈검정저고리〉(「농민」1932. 12)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량주의 측의 이념적 대립 내지는 농민획득경쟁관계의 반영일 터이다. 사회주의 운동에 실패하고 조선농민사의 농촌운동에 뛰어들은 인물(일민)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점 자체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생각되거나, 일민은 또 서울의 친구인 백찬세(白贊世)에게 편지를 띄워 맑스·레닌주의를 맹렬히 비난하고 천도교청년당의 농민사운동을 “조선농민의 실정에 꼭 맞는”<sup>68)</sup> 것이라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같은 사회주의 비판이 이 소설로 하여금 농민의 역사적 위치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성찰을 놓치게 하고, 따라서 당시의 식민지 농촌현실의 근원적 문제점을 호도하게 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는지도 모른다.

이 밖에도 「농민」에는 조선농민사의 농촌운동의 일환으로 쓰여진 농민소설들이 많이 실려 있다.<sup>69)</sup> 韓東友의 〈農村의 新春風景〉(「농민」 1932.2)은 여러가지 농촌문제를 집약시켜 놓은 작품이면서도, 그것을 단편적으로 취급한 데다가 조선농민사의 선전이 작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丁榮泰의 〈新은이의 권고〉(「농민」 1932.1) 또한 조선농민사를 선전하고 있는 작품이다. 게다가 농민들의 부지런함과 절약만을 강조함으로써 농촌의 근본문제를 가리우고 있다. 또 朴達成의 〈農民教養日의 農民對話〉(「농민」 1930.12)는 농촌궁핍의 원인으로 쌀값과 지가(地價)의 폭락을 들어 농민들을 설득시키고 있는데, 그로 인해 역시 절약만이 강조되어 일제의 식민지 농촌정책에 대한 비판이 약화된 작품이다. 그리고 金秉濟의 〈農村에 돌아와서〉(「농민」 1930.5~1930.8)는 사회주의를 배척하고 천도교의 입장을 선전하는 작품인데, 농민들의 무지에만 초점을 맞춘 계몽위주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까닭에, 당시 농촌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호도한 느낌을 준다.

68) 허문일, 〈자주촌〉(「농민」 1933.7), p.56.

69) 물론 「농민」에 수록된 작품들 전부가 이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鯨波의 〈불쌍한 외할아버지〉(「농민」 1932.8)는 비록 소름이 긴 하지만 가난과 노동에 시달리다 죽어간 한 老農의 이야기이며, 역시 소름이지만 李東林의 〈선달 그림날〉(「농민」 1933.10)은 농촌에서 야학운동을 하다가 실패하고 동리를 떠나가는 T라는 청년의 이야기이다. 그 외에도 「농민」에는 의미있게 읽힐 수 있는 작품들이 더러 실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민」의 농민소설들 전체를 두고 볼 때는 천도교 신파측의 정치적 성향(민족개량주의)에 따라 조선농민사의 농촌계몽운동을 그대로 반영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겠다.

#### IV. 결 론

가장 소박한 의미에서 농민문학은 농민생활을 반영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규정은 소재적 차원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농민생활을 막연히 단순한 자연인으로서의 향토적·지방적 생활로 이해하기보다는, 일정한 역사적(민족사적·민중사적) 단계에서의 사회적 조건에 구속된 구체적 삶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농민문학의 개념 속에 민족적 시각과 계급적 근거를 아울러 포함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것이 곧 농민문학이라는 하나의 범주 설정에 현실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소이다. 농민문학의 중요성은 농민생활의 문제점과 더불어, 그것이 발생한 1920년대 중반기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오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문학의 개념규정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농민문학의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실천적 성격까지를 포함시킬 것이 또한 요구된다. 바로 여기서 농민문학을 문학운동의 개념과 관련시킬 필요성이 대두하는 것이다. 즉 농민문학은 농민문학운동의 표현으로 존재하면서, 민족·민중문학운동의 표현으로 존재하는 민족·민중문학의 부분문학이다. 한편 농민문학운동은 농민운동의 부분운동이면서 민족·민중문학운동의 부분운동이기도 하다. 그리고 농민운동과 민족·민중문학운동은 가자 민족·민중운동의 부분운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농민문학은 민족·민중운동의 한 표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체 아래 식민지시대의 농민문학연구의 일환으로 민족개량주의적 정치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천도교 신파측의 전위조직이라 할 수 있는 천도교청년당의 외곽조직인 조선농민사의 기관지였던 「조선농민」과 조선농민사가 천도교청년당의 하부조직으로 개편된 이후의 기관지였던 「농민」에 수록된 농민문학론과 농민소설을 비판적 입장에서 검토하였다. 이제 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농민」의 농민문학론은 이성환, 김도현, 김기진 등에 의해 전개되었다. 이성환의 농민문학론은 민족주의적 관점과 중농주의적 관점에

서 출발하여, 그것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점차 프로문학적 관점과 반봉건적 관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행되어 갔다. 이와같이 이성환은 조선농민사의 단체성격(농민운동의 성격)과는 달리 민족개량주의적 관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천도교청년당의 핵심간부였던 김도현의 농민문학론은 다분히 농민계몽을 위주로 하는 농민개량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다. 또 김기진은 예술대중화론의 일환으로 농민문학 창작방법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이것은 물론 프로문학의 기본시각을 지닌 견해이므로 조선농민사의 성격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면 「조선농민」의 농민문학론은 민족개량주의적 관점을 크게 부각시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농민」의 농민문학론은 거의 전부가 천도교 신파측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백민, 한빛, 임연, 허일 등에 의해 전개된 「농민」의 농민문학론은 이따금 농민문학의 계급적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조선민족의 민족성 문제를 거론하고 천도교청년당의 지도성을 강조하는 등 일관되게 민족개량주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농민」의 농민문학론이 「조선농민」의 논지에서 후퇴하게 된 것은 물론 조선농민사가 천도교청년당의 명실상부한 연속단체가 되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조선농민」과 「농민」의 농민문학론 성격의 이같은 낙차는 민족주의 좌우파 및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와의 분화과정과 양측의 대립관계, 그리고 총독부의 정책변화 등 당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를 일정하게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조선농민」의 농민문학론이 중농주의적 색채를 띠는 반면, 「농민」의 농민문학론이 계급적 시각을 때때로 내보이는 것은 조선농민사측의 농민문학론이 당시문단의 농민문학론을 단편적으로나마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조선농민」의 농민소설은 최인준, 명용준 등에 의해 쓰여졌다. 최인준의 <대간선>은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드러낸 작품이나, 그러한 의식이 개인적 차원의 절망적 저항으로 귀착되고 말았다. 같은 작가의 <폭풍우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계급의식에 바탕을 둔 집단적 저항을 묘사하였으며, 그 결과 어떤 변혁을 예고함으로써 의미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명용준의 <저류>는 주인공의 영웅화로 인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더우기 민족성 문제를 운위하는 등의 민족개량

주의적 관점에 따른 결과 거짓 전망을 보이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밖에 「조선농민」의 농민소설들은 미신타파를 주제로 삼은 것들이 많으며, 단순히 농민들에게 오락물로서의 읽을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들도 상당수가 있다.

「농민」의 농민소설들은 대부분이 천도교 신파측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쓰여진 것들로 보인다. 일광의 <봄철>은 농민들의 근면과 절약에 의해 농민해방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 농민의 사회구조적 현실을 호도하여 결국 허망한 낙관주의에 도달하였다. 허문일의 <자주촌> 역시 조선농민사의 민족개량주의적 농촌운동을 충실히 대변한 작품이다. 특히 이 소설에는 조선농민사측의 농민당면이익 획득운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나타나 있다. 이밖에 「농민」에는 조선농민사의 농촌운동의 일환으로 쓰여진 농민소설들이 많이 실려 있다. 「조선농민」과 「농민」의 농민소설 성격의 이같은 낙차 역시 농민문학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선농민사의 단체성격의 변화와 당시의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에서 조선농민사측의 농민문학은 「조선농민」과 「농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천도교 신파측의 정치적 성향인 민족개량주의적 성격에 지배되어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조선농민사측의 농민문학은 일부의 농민문학론과 농민소설을 제외하고는 앞서 언급한 민족·민중문학적 관점 또는 민족·민중운동의 관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농민사와 소품적인 농민소설들에는 단편적이긴 하지만 의미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이 비록 중앙조직의 통제하에 이루어졌으나, 지방조직에 따라서는 농민운동과정에서 자생적(농민주체적) 운동역량이 확보될 수 있었으리라는 측면과 관련된다.

### <참고문헌>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5.

권영민, 한국민족문학론연구, 민음사, 1988.

김명인, “민족문학과 농민문학”(한국문학의 현단계Ⅳ, 창작과 비평사, 1985).

-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82.
-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 김윤식·정호웅 편,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 탑출판사, 1987.
- 김윤식·정호웅 편, 한국근대리얼리즘작가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8.
- 김현숙, “일제하 민간협동조합운동에 관한 연구”(일제하의 사회운동, 문학과 지성사, 1987).
- 박현채 외, 한국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돌베개, 1984.
- 신경림 편, 농민문학론, 은누리, 1983.
- 신동욱, 한국현대비평사, 시인사, 1988.
- 신춘호, 한국농민소설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0.
- 안병직 외,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돌베개, 1980.
- 오양호, 농민소설론, 형설출판사, 1984.
- 임영환, 1930년대 한국농촌사회소설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6.
- 장시원 외, 한국근대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열음사, 1988.
- 조동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1979.
- 지수걸, “조선농민사의 단체성격에 관한 연구”(『역사학보』 106, 1985.6)
- 지수걸, “1930년대 초반기(1930~33) 사회주의자들의 민족개량주의 운동비판”(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 역사비평사, 1988).
- 최원식, “농민문학론을 위하여”(한국문학의 현단계Ⅲ, 창작과 비평사, 1984).
- \*〈조선농민〉, 〈농민〉 등 당시의 잡지와 신문에 실린 글들은 각주로 대신함.